

이돈화의 현상즉실재론 전유, 개념에서 논법으로

－ 이노우에의 유물론 반박은 어떻게 '인내천 논증'이 되었는가

발표자: 허 수 (서울대)

- 序 어휘는 나뉘는데 순서는 겹친다
- 1 장 두 책을 견주는 법과 겹침이 몰린 자리
- 2 장 유물론을 반박하는 순서
 - 2-1 實在 항의 순서는 누구의 것인가
 - 2-2 生命 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 3 장 인내천 논증이 되기까지
 - 3-1 그 논법은 왜 1922 년에 불러 나왔는가
 - 3-2 무엇이 깎였고 무엇이 남았는가
- 結 개념에서 논법으로

序 － 어휘는 나뉘는데 순서는 겹친다

「인내천(人乃天)」은 손병희 대에 양한묵이 서구 근대철학의 사유방식을 받아들여 제시한 천도교의 종지(宗旨)이고, 이돈화는 그 개념을 「인내천주의」라는 체계로 확장했다. 이 발표에서 「인내천 논증」이라 하는 것은 그가 인내천을 종교·철학·과학의 세 방면에서 논증하려 한 작업을 가리킨다. 그 三分의 틀은 1915 년 5 월 『천도교회월보』의 「最高消遣法」에서 처음 나타나고, 『개벽』 연재 「人乃天의 研究」(1920~1921)를 거쳐 1924 년 3 월 『인내천-요의』 제 3 장 제 4 절 「人乃天의 哲理」로 집약된다.¹

¹ 이상은 허수, 『이돈화 연구: 종교와 사회의 경계』, 역사비평사, 2011, 제 1 부의 정리에 따른다. 三分法이 이돈화의 논설에 처음 나타나는 자리는 李敦化, 「最高消遣法」, 『天道教會月報』 58, 1915 년 5 월, 25 쪽이며, 허수는 이 구분법을 이돈화가 『철학과 종교』(1915 년 2 월 발간) 제 1 장에서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로 든다.

그 논문에서 이돈화가 이노우에 데쓰지로의 『철학과 종교』(1915)에 의거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어 있다. 허수(2011)는 현상즉실재론을 이돈화의 사상 전개에서 「핵심적인 외적 변수」로 규정하고, 이돈화가 現象과 本質(實在), 精神과 物質이라는 개념 짝과 「이원론적 일원론」 도식을 함께 받아들였음을 보였다.² 같은 연구가 그 책이 놓인 자리도 밝혀 두었다. 사회주의의 대두에 이돈화가 인내천주의를 강화해 대응한 산물이 『인내천요의』이며, 그 안에서 맑스주의의 유물론을 「하나를 알고 둘을 알지 못하는 결함」이라 비판한 대목도 이미 지목되어 있다.³ 이노우에 쪽에서도 유물론 반박은 주변이 아니다. 그의 책 제 2 장의 주된 목적이 유물론과 유심론을 종합하는 실재론의 정립이다.

그러나 두 사실은 아직 이어지지 않았다. 이돈화가 유물론을 비판했다는 것과 그가 이노우에에게서 개념과 도식을 받았다는 것은 각각 밝혀졌으나, 그 비판이 이노우에가 유물론을 비판하던 절차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학과 종교』와 『인내천요의』가 공유하는 어휘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유물론을 비판하는 순서는 겹친다. 그 순서가 어떻게 겹치는지는 본 발표의 2 장에서 본다. 이는 개념의 겹침도 도식의 겹침도 아니다. 개념을 빌리면 어휘가 겹치기 마련이고 도식을 빌리면 배치가 겹치는 법인데, 여기서 실제로 겹치는 것은 반박을 펴는 순서이다. 선행연구는 두 책의 도식을 맞대 본 적이 있으나 논법을 맞대 본 적은 없다.

두 책 사이에는 이돈화가 『개벽』과 『천도교회월보』에 실은 논설들이 놓여 있다. 그 잡지를 거친 굴절의 양상은 별고에서 다루고, 이 발표에서는 두 책을 곧바로 맞대는 데 집중한다. 그렇다면 연구질문은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돈화가 현상즉실재론에서 받아들인 것은 주요 개념과 이원론적 일원론 도식이었나, 유물론을 무너뜨리는 논법까지였나. 선행연구는 개념과 도식까지로 답했다. 이 발표는 논법까지 받아들였다고 답한다.

² 허수(2011), 21 쪽. 두 책의 도식을 맞댄 것은 같은 책 66 쪽의 그림이며, 그 출전이 井上哲次郎, 『哲學と宗教』, 1915, 66 쪽과 李敦化, 『人乃天-要義-』, 1924, 96 쪽이다. 허수(2025)는 이 수용을 시간관의 층에서 다루어, 『개벽』 주도층이 진보의 단선적 시간관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본성의 회복으로 되돌리는 「재귀적 시간화」의 논리를 세웠음을 밝혔다(허수, 「『공간의 시간화』에 맞선 「재귀적 시간화」 - 1920 년 전후 『개벽』 주도층의 현상즉실재론 수용과 변용」, 『한국사론』 7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25, 393~433 쪽).

³ 『人乃天-要義-』, 200~201 쪽. 허수(2011), 제 2 장 「종교적 사회개조론의 전개」 가운데 「맑스주의의 선택적 수용」 절, 177 쪽에서 재인용.

이 연구질문을 떠받치는 하위 질문은 넷이다. 첫째, 이노우에의 책에서 이돈화의 글과 어휘가 겹치는 곳은 철학의 논의였나 종교의 논의까지였나. 둘째, 유물론을 반박하는 논점과 순서는 이돈화 자신의 것이었나 이노우에의 것이었나. 이 질문은 전체 질문을 직접 판정하는 자리다. 셋째, 그 논법이 1922년에 불려 나온 까닭은 교단 안의 분규였나 교단 밖의 유물론이었나. 넷째, 그 논법이 1915년의 강연록에서 1924년의 교리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켰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자료와 방법을 밝히고 어휘가 겹치는 자리를 살핀다(첫째 질문). 2장에서 두 책의 반박 순서를 實在 함과 生命 함 두 자리에서 맞댄다(둘째 질문). 3장에서 그 논법이 1922년에 불려 나온 사정(셋째 질문)과, 옮겨 오는 동안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켰는지(넷째 질문)를 본다.

1 장 두 책을 건주는 법과 겹침이 몰린 자리

1 장은 첫째 질문에 답한다. 『철학과 종교』와 『인내천요의』는 성립의 방식도 언어도 분량도 달라 그대로 맞댈 수 없으므로, 먼저 건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앞선다. 그 뒤에 겹침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이노우에의 스물아홉 장을 하나도 빼지 않고 건주어 답한다.

『철학과 종교』는 단일 저술이 아니다. 이노우에 자신이 序에서 「요사이 지난 사오 년간의 논문을 모아 이를 살펴보니」라 밝힌 대로 1910년 전후 몇 해의 글을 묶은 것이고, 그 글들의 대부분은 강연·강화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 본문 스물아홉 장 가운데 스물여덟 장이 「~であります」의 경어체이고, 열 장에는 청중을 부르는 「諸君」이 나온다.⁴ 『인내천요의』는 이돈화 명의로 나왔으나 교단이 펴냈다. 판권장이 著作兼發行人을 李敦化로, 發行所를 天道教中央宗理院布德課로 적고 두 주소가 京城府 慶雲洞 八八番地로 같다.

무엇을 건줄 것인지 먼저 정해 두지 않으면 눈에 띄는 대목 중심으로 비교하게 되고, 결론에 들어맞는 대목만 고를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했다.

⁴ 본 발표 2 장에서 정독하는 제 2 장이 그 예이다. 이노우에가 현상즉실재론을 논한 글은 「내 세계관의 먼지 한 톨」(1894)에서 시작해 「唯物論と唯心論とに對する實在論の哲學的價值」(1911)로 이어지며, 이 책의 제 2 장이 그 1911년 논문이다. 이해경, 「이노우에 데쓰지로와 현상즉실재론」, 『개념과 소통』 31, 한림과학원, 2023, 261 쪽.

먼저 어느 크기로 자를 것인가. 연속 다섯 문장을 한 묶음으로 삼는다. 문단은 한 문장짜리부터 스무 문장이 넘는 것까지 편차가 커서 길이가 닳음을 좌우하고, 문장 하나는 담긴 한자어가 너무 적어 우연이 지배한다. 이렇게 자르면 1915 년 쪽은 2,195 묶음, 1924 년 쪽은 424 묶음을 얻는다. 다음은 무엇을 셀 것인가. 양쪽이 漢字로 적는 두 글자 이상의 어휘(이하 한자어)를 센다. 조사·어미·활용은 서로 견줄 수 없으나 개념을 지시하는 자리만은 양쪽 다 한자로 적는다.⁵ 끝으로 다음을 어떻게 셀 것인가. 두 책의 묶음을 하나도 빼지 않고 짝지어, 각 쌍마다 두 묶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한자어의 가짓수가 둘을 합쳐 나오는 가짓수 가운데 얼마를 차지하는지로 쟀다. 표본을 뽑거나 눈에 띄는 대목만 고르는 일이 없다.

기계로 전부 훑어야만 말할 수 있는 것이 둘이다. 하나는 「없다」라는 판정이다. 626 문단과 365 문단을 다 읽어도 「내가 못 본 데 있을지 모른다」가 남는다. 문자열로 전부 훑어야 비로소 井上이라는 이름이 이돈화의 글 전체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⁶ 다른 하나는 무엇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이다.

<표 1> 두 책의 처리 흐름

단계	한 일	『인내천요의』	
		『철학과 종교』(1915)	(1924)
1 전사·구조화	원본 스캔 이미지를 OCR 로 옮기고 장·절·항에 따라 문단마다 위치 코드를 붙인다	29 개 장(序 1 · 본론 26 · 附錄 2)	6 개 장
2 문단	원본의 문단 구획을 유지한다	626 문단	365 문단
3 단위화 - 어느 크기로 자를 것인가	연속 다섯 문장을 한 묶음으로 자른다	2,195 묶음	424 묶음
4 토큰화·정규화 - 무엇을 셀 것인가	두 글자 이상 한자어만 남기고 한국 한자음으로 통일한다	39,782 개(고유 9,173)	15,657 개(고유 4,333)

⁵ 정규화는 이체자를 통일하고 한국 한자음으로 옮기는 단계를 거친다. 한자 표기만 남기는 방식과 한국 한자음으로 정규화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교차 검증했으며 이 발표가 달는 판정은 두 방식 모두에서 성립한다. 절차와 수치는 저장소에 있다.

⁶ 이 판정들은 OCR 로 옮긴 텍스트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원본의 글자가 잘못 읽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0 건 판정에 쓴 이름은 부분 문자열까지 훑어 확인했다. 편별 목록과 판독 등급은 저장소에 있다.

단계	한 일	『철학과 종교』(1915)	(1924)
5 전수 대조 - 닳음을 어떻게 짤 것인가	두 책의 묶음을 빠짐없이 짜지어 견준다	2,195 × 424	= 930,680 쌍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두 책은 어휘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 930,680 쌍 가운데 84.0%가 공유하는 한자어를 하나도 갖지 않고, 가장 닳은 짝도 0.22 에 그친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 두 책 사이에 어휘가 곧장 건너간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 판정이 재는 단위를 밝혀 둘 필요가 있다. 다섯 문장 묶음 사이에 높은 어휘 유사도가 없다는 것이지, 어휘 하나하나가 옮겨 갔을 가능성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발표가 묻는 것은 그다음이다. 어휘가 곧장 건너가지 않았는데 유물론을 반박하는 순서는 왜 같은가.

남은 물음은 희박한 그 겹침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이다. 이노우에의 스물아홉 장을 장 제목에 따라 철학(제 1~제 11 장)·종교(제 12~제 26 장)·附錄(2 편)으로 가르고, 각 장의 묶음이 1924 년 책의 묶음과 겹치는 쌍이 몇인지 센다. 긴 장일수록 겹치는 쌍이 자연히 많아지므로 묶음 100 개당 몇 쌍으로 고쳐 낸다.⁷

<표 2> 이노우에의 각 파트·장이 1924 년 책과 어휘가 겹치는 밀도

(묶음 100 개당 유효쌍. 순위는 序·附錄을 포함한 29 개 단위 기준)

	묶음	유효쌍	100 묶음당	순위
철학 (제 1~제 11 장)	968	362	37.4	—
종교 (제 12~제 26 장)	1,008	193	19.1	—
附錄 (2 편)	215	2	0.9	—
第六 生命に伴ふ五種の特徴〔철학〕	53	48	90.6	1 위
第十四 佛基二教の差異點〔종교〕	40	28	70.0	2 위
第二 唯物論と唯心論とに對する實在論の哲學的價值〔철학〕	133	76	57.1	3 위

⁷ 문턱은 두 묶음이 얼마나 닳아야 「겹친다」고 볼 것인지를 가르는 경계이며 0.08 로 두었다. 이 자료에서 가장 닳은 한 쌍이 0.22 이므로 그 3 분의 1 을 넘게 닳아야 통과한다는 뜻이 된다. 문턱을 0.06·0.08·0.10·0.12 로 바꾸면 재어 나온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만 어느 장이 위에 오는지와 철학 파트가 종교 파트의 몇 배인지는 바뀌지 않는다. 산출은 저장소에 있다.

	목록	유효쌍	100 목록당	순위
第五 死生の問題に就いて〔철학〕	170	86	50.6	4 위
第十三 基督教と儒教〔종교〕	60	30	50.0	5 위
第七 生理學者の生命論〔철학〕	99	46	46.5	6 위
第廿一 我國宗教の前途〔종교〕	82	36	43.9	7 위
第廿五 神道の過去及び將來〔종교〕	78	4	5.1	21 위
第廿六 日本神話の新解釋〔종교〕	144	6	4.2	23 위
附錄一 日本民族の起原に關する考證	183	2	1.1	27 위
附錄二 近時の日本人種論	32	0	0.0	29 위

이 분포는 선행연구가 지목한 범위와 겹치되 같지 않다. 허수(2011)는 이노우에의 철학적 입장이 맨 앞 네 장에 집중된다고 보았는데,⁸ 밀도로 재면 1 위는 그 넷 밖의 제 6 장 生命に伴ふ五種の特徴이다.

갈림의 선은 뚜렷하다. 이노우에가 신도와 일본 신화, 일본 민족의 기원을 논한 자리는 넷인데 그 넷이 각각 21 위·23 위·27 위·29 위로 모두 하위권에 있다. 가장 높은 神道の過去及び將來가 5.1 로 종교 파트 평균 19.1 의 4 분의 1 이다. 이노우에 자신의 일본 서사가 놓인 자리이며, 이돈화의 글과 어휘가 거의 겹치지 않는다. 한편 종교 파트에서도 어휘가 많이 겹치는 장이 있다. 我國宗教の前途가 43.9 로 철학 파트의 평균을 웃돈다. 이 장이 1924 년 책과 나누는 것은 신앙·도덕·희생·희망·장래처럼 종교의 사회적 앞날을 논하는 어휘이다.⁹

곧 겹침을 가르는 기준은 파트의 경계가 아니라 논의의 성격이다. 본 발표의 [첫째 질문]에 답하면, 어휘가 겹치는 곳은 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되 종교 쪽으로도 두 갈래가 뻗어 있으며, 그 두 갈래 어느 쪽도 이노우에가 신도와 일본 신화, 일본 민족의 기원을 논한 자리는 아니다.

⁸ 허수(2011)은 『『철학과 종교』에서 이노우에의 철학적 입장은 주로 전반부 11 개의 장에 담겨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맨 앞부분에 있는 4 개의 장에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았다.(허수, 2011, 112~113 쪽).

⁹ 我國宗教の前途의 겹침이 신앙·도덕처럼 어느 글에나 나오는 일반어 때문에 생긴 것인지 세 지표로 시험했으나 셋이 같은 답을 내지 않았다(전체 표는 저장소에). 그래서 이 장을 판정의 근거로 삼지 않고, 본문의 주장을 「神道·日本神話·日本民族의 起原을 논한 자리와 겹치지 않는다」로 좁혔다.

<표 2>에서 보았듯이 상위 일곱은 두 무리로 갈린다. 넷은 유물론과 생명을 논하는 철학의 장이고, 셋은 종교를 견주거나 종교의 앞날을 묻는 장이다. 이후 2장에서 읽을 것은 유물론을 반박하는 논법이므로 대상은 앞의 넷, 곧 철학 파트에서 밀도 1 위부터 4 위까지인 장들이다.¹⁰ 곧 2장에서 정독할 장들은 임의로 고른 것이 아니라 분포가 지목한 것이다.

2 장 유물론을 반박하는 순서

1장에서 지정한 자리는 넷이었다 - 生命に伴ふ五種の特徴, 唯物論と唯心論とに對する實在論の哲學的價值, 死生の問題に就いて, 生理學者の生命論. 그런데 이돈화 쪽에서 이 넷에 대응하는 자리는 『인내천요의』의 인내천 哲理 절에 포함된 두 항이다. 이 장에서는 [둘째 질문]에 답한다 - 유물론을 반박하는 논점과 순서는 이돈화 자신의 것이었나, 이노우에의 것이었나. 2장 1절에서 實在 항을, 2장 2절에서 生命 항을 맞댄다.¹¹

2-1 實在 항의 순서는 누구의 것인가

이 절이 다루는 것은 유물론과 유심론을 함께 비판하는 제 2 장이고, 이돈화 쪽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자리는 『인내천요의』 제 3 장 제 4 절 「人乃天의 哲理」의 둘째 항 「實在와 人乃天」이다. 두 자리를 세 층에서 맞댄다 - 논의를 펴는 순서, 반박의 논점과 그 수, 그리고 항목의 이름.

먼저 논의를 펴는 전체 순서가 서로 같다.¹²

<표 4> 절 전체 전개 대조

이노우에 제 2 장	이돈화 「實在와 人乃天」
① 철학의 두 큰 계통을 세운다 - 唯	宇宙를 觀하는 「두 가지 큰 潮流」를 세운다

¹⁰ 나머지 셋에 유물론을 반박하는 대목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발표가 정독한 것은 넷이며, 2장과 3장의 판정은 그 넷에 근거한다.

¹¹ 『哲學と宗教』는 인용마다 쪽수를 괄호로 밝히고, 『人乃天-要義』는 인용이 제 3 장 제 4 절 「人乃天의 哲理」에 몰려 있으므로 절마다 각주 하나로 묶어 적는다. 저본은 필자가 소장한 인쇄본이며 원본 지면의 쪽수이므로 『東學思想資料集』 3 수록본으로 찾아도 같다.

¹² 이 절이 인용하는 이돈화의 대목은 모두 『人乃天-要義』 제 3 장 제 4 절 「人乃天의 哲理」의 제 2 항 「實在와 人乃天」, 91~96 쪽이다.

物論↔唯心論

- | | | |
|---|------------------------------|--|
| ② | 유물론이 무엇인지 밝힌다 | 「宇宙萬有의 存在及作用이 다갓티 物質의 現象及力에 지나지 안이 한다」 |
| ③ | 유물론을 다섯 논점으로 비평한다 | 세 논점으로 비평한다 - 앞의 셋과 순서가 같다 |
| ④ | 유심론으로 옮겨 그것이 무엇인지 밝힌다 | 「唯心論은 … 唯物論의 相對方으로 일어난 眞理니」 |
| ⑤ | 유심론을 다섯 논점으로 비평한다 | 「둘이다 一偏의 缺陷이 잇슴」이라는 대칭 한 쌍으로 줄인다 |
| ⑥ | 實在論으로 옮겨 心物 두 계를 아우른다 | 「唯物은 곳 唯心이오 唯心은 곳 唯物」, 그 唯一의 原理가 實在다 |
| ⑦ | 기존 實在論을 검토한다 - 스피노자·하르트만·스펜서 | 없다 |
| ⑧ | 가장 완전한 것으로 圓融實在論·現象即實在論을 든다 | 「現象即實在의 觀念」과 「圓融永遠의 實在」 두 항목을 세운다 |

여덟 마디 가운데 일곱이 차례대로 대응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은 ⑦ 하나이다. 다만 <표 4>만으로 이 순서가 이노우에에게서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덟 마디 가운데 다섯(①②④⑥⑧)은 유물론과 유심론을 함께 다루는 글이라면 으레 밟는 순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정은 남은 자리에서 내려야 한다. ③의 반박 논점이 내용까지 같은가, 이노우에가 든 다섯 가운데 어느 것을 잘라 냈는가, 그리고 항목의 이름이 그대로 왔는가이다.

<표 4>의 ③, 곧 유물론을 비평하는 마디가 그 자리이다. 이노우에가 다섯 논점을 드는 데 비해 이돈화는 셋을 드는데, 그 셋은 내용도 순서도 이노우에의 앞의 셋과 같다.

<표 5> 유물론을 반박하는 논점과 순서

- | | 이노우에 제 2 장 | 이돈화 「實在와 人乃天」 |
|----|--|---|
| 첫째 | 물질이 무엇인지 끝내 밝히지 못한다
- 原子에서 電子로 가도 마찬가지다 | 物質의 究竟을 말하지 못한다 - 分子·原子·原原子를 논해도 그 究竟을 알지 못한다 |
| 둘째 | 물질은 정신을 예상한다. 인식의
순서상 정신이 먼저다 | 「客觀的 原理만 是認하고 主觀的 原理를 認定하야 주지 안은 것」이 「自家의 撞着」이다 |

셋째	물질은 결국 우리의 觀念이다	사람의 感情的 作用을 諒解치 못한다 - 戀愛가 그러하다
넷째	유물론의 長處도 인정해야 한다	-
다섯째	우리가 가진 意識은 부정할 수 없다	-

셋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그대로 대응하고 셋째만 다르다. 그렇다면 셋째 자리는 이노우에 이외의 출처에 의존하는가. 셋째에서 이노우에의 「觀念」 논변은 이돈화의 둘째 논점에 흡수되고 그 자리에 「戀愛」가 들어온다. 그런데 그 戀愛도 이노우에에게서 왔다. 재료는 제 2 장의 네겔리 대목이고, 논법은 제 5 장의 기계론 반박이다.¹³ 다만 제 2 장에서 그 비유는 이노우에 자신의 논거였다. 그는 拒力·引力을 감정이라 규정하고 물질에도 의식이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이돈화는 그 재료를 제 5 장의 논변으로 옮겨 논지의 방향을 반대로 돌렸다. 같은 대목이 첫째 자리도 떠받친다. 이돈화의 첫째 논점에 나오는 拒力·吸引力이 곧 네겔리의 拒力·引力이다.

이노우에가 든 넷째와 다섯째는 이돈화에게 오지 않는다. 빠진 셋째·넷째·다섯째와 <표 4>의 ⑦ - 은 모두 3 장 2 절에서 다시 다룬다. 유심론 반박도 크게 압축된다. 이노우에는 여기서도 다섯을 드는데 이돈화는 그 다섯을 하나로 줄여, 유물론이 主觀을 인정하지 않은 결함과 나란히 유심론도 客觀을 不認하는 폐단에 빠졌다는 대칭 한 쌍으로 놓는다.

남은 것은 셋째, 항목의 이름이다.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두 글의 결론부이다.

철학과 종교: 그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는 圓融實在論이라고도 또 現象即實在論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취지를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¹⁴

인내천요의: 實在를 생각하는 觀念上 두 가지의 抽象을 그려 둘 必要가 있나니 하나는 現象即實在의 觀念이오 하나는 圓融永遠的 實在라 하는 것이라¹⁵

¹³ 재료 쪽은 이노우에가 네겔리(Nägeli)를 소개하며 물질의 拒力·引力을 인간의 憎愛에 견주고 남녀의 연애를 비유로 든 대목이고, 이돈화 쪽은 「青年時期의 男女가 熱烈한 情操에 依하여 忽然이 合하며 忽然이 分함」이다. 논법 쪽은 이노우에가 기계론을 반박하며 틴들을 끌어 「戀愛といふやうな事は外部からは説明が付かぬ」고 한 대목이고, 이돈화 쪽은 「이를 千律一篇의 同一한 作用인 力學的 機械的으로 보지 못할 것이라」이다.

¹⁴ 井上哲次郎, 『哲學と宗教』, 第二 唯物論と唯心論とに對する 實在論の哲學的價值, 82~83 쪽.

¹⁵ 李敦化, 『人乃天-要義-』, 제 3 장 제 4 절 「人乃天의 哲理」 제 2 항 「實在와 人乃天」, 97 쪽.

이노우에는 두 이름만 대고 설명하지 않겠다며 강연을 달는다. 이돈화는 그 두 이름을 그대로 두 항목으로 세우고 각각을 설명한다 - 現象即實在는 莊子の「道는 屎中에도 在하다」로, 圓融的 實在는 시간과 공간으로 푼다. 이름이 같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논의를 펴는 상식은 유물론에서 유심론으로 옮겨 가는 순서까지는 줄 수 있어도, 항목의 이름을 두 개나 똑같이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절의 물음에는 이렇게 답한다 - 實在 항의 순서는 이노우에의 것이다. 순서도 반박의 논점도 항목의 이름도 그러하다. 다만 이돈화는 그 두 이름을 자기 논의로 설명했고, 그 설명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는 3 장 2 절에서 본다.

2-2 生命 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 절이 다루는 이돈화 쪽 자리는 같은 절의 제 4 항 「生命과 人乃天」이다.¹⁶ 이 항이 상대하는 이노우에의 장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다 - 제 6 장 「生命に伴ふ五種の特徴」, 제 5 장 「死生の問題に就いて」, 제 7 장 「生理學者の生命論」. 1 장에서 지정한 네 장 가운데 셋이 이 한 항에 대응한다.

生命 항은 생명의 특성을 열거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 목록을 순서까지 그대로 받는다.

<표 7> 생명의 다섯 특징과 그 이식

이노우에 「生命に伴ふ五種の特徴」(제 6 장) 이돈화 「生命과 人乃天」

(一) 運動 Bewegung	第一 生命은 運動이니라
(二) 統一 Einheit	第二 生命은 統一作用이 有하다
(三) 目的 Zweck	第三 生命은 目的이 有하다
(四) 自由 Freiheit	—
(五) 自覺 Selbstbewusstsein	第四 生命은 自覺이 有하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이름도 순서도 그대로이다. 自由가 빠지고 다섯째 自覺이 그 자리로 올라온다. 다섯을 넷으로 줄이되 이름은 하나도 새로 짓지 않았다.

대립항을 세우고 하나를 물리치는 수순도 같다. 이노우에는 제 5 장에서 活力論의 네 갈래 계보를 편 뒤 「보기에 따라서는 결국 둘이 되는 셈」이라며 活力論과 機械論 둘로 압축하고, 기계론이 정신현상을 도외시한다는 점을 든다. 이돈화의 生命 항은 「生命發生에 對한 兩種의 議論을 말하면

¹⁶ 이 절이 인용하는 이돈화의 대목은 모두 같은 절 제 4 항 「生命과 人乃天」, 106~110 쪽이다.

하나는 機械論이라 하고 하나는 活精論이라 하나니」로 곧장 압축하고, 기계론을 물리친 뒤 「오늘날 가장 合理的 學說은 活精論」이라 맺는다.

그 活精論은 이노우에 活力論의 변안이다. 「活」은 남기고 「力」을 「精」으로 갈았다. 갈아 끼운 것은 글자만이 아니다. 이노우에에게 活力은 학설사의 이름이어서 둘레에 학파 이름과 인명만 놓이는 데 비해, 이돈화에게 活精은 實在·大宇宙·靈魂과 함께 사용된다 - 「全宇宙는 畢竟 不生不滅의 活精體」, 「大宇宙의 活精이 사람에게 表顯될 時 吾人は 이를 稱하야 靈魂이라 하는 것」. 이 배치는 이노우에에게 없다. 그의 책에서 大宇宙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¹⁷

생명의 기원을 묻는 대목도 세 설을 그대로 받는다. 自然發生論과 生原轉移論을 물리치고 「어쨌든 우주 전체의 絕對生命을 세우고 우리 개인은 그것을 나누어 받은 것이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가는 이노우에의 순서를, 이돈화는 突然發生說과 他界移轉說을 물리치고 「生命은 大宇宙의 大生命 그대로가 個體化로 表顯하였다는 說이니 此說이 가장 合理的이며」로 그대로 받는다. 곧 生命 항은 세 장을 차례로 이어 붙인 것이다.

이상 2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자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유물론을 반박하는 논점과 순서는 이돈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노우에의 것이다. 이 대응을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 유물론에서 유심론으로 옮겨 가는 순서라면 어느 글에서나 밟을 수 있으나, 반박 논점의 내용이 같고 다섯 가운데 앞의 셋만 남긴 자리가 같으며 다섯 특징의 이름이 그대로인 것은 그 순서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돈화는 이노우에의 한 장을 한 항으로 옮기지 않았다. 實在 항에는 제 2 장의 순서에 제 5 장의 논법을 넣었고, 生命 항에는 세 장을 이어 놓았다. 그리고 제 2 장의 한 대목은 두 항으로 나뉘어 들어가면서 그 논변에서 말하는 뜻이 달라진다. 그 나뉨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3 장 2 절에서 본다.

3 장 이내천 논증이 되기까지

2 장에서 본 것은 논변의 절차가 그대로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 왜 불러 나왔는지, 오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아직 답하지 않았다. 3 장에서는 남은 두 하위질문에 답한다.

¹⁷ 산출은 정규화 토근 기준이며 두 책의 전체 빈도표에서 재현된다. 다만 이돈화도 活精을 「不思議한 活力」으로 풀이한다(107 쪽). 이름은 갈았으되 정의는 남겼다.

3-1 그 논법은 왜 1922 년에 불러 나왔는가

이 절은 그 까닭이 교단 안의 분규였나 교단 밖의 유물론이었나를 묻는다. 답하려면 세 가지를 차례로 물어야 한다. 그 논법이 처음 나타난 자리는 어디인가, 그 전에는 정말 없었는가, 그리고 왜 하필 그때 불러 나왔는가.

① 처음 나타난 자리는 어디인가

유물론 비판 논법이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는 1922 년 2 월 『개벽』 제 20 호의 「吾人의 新死生觀」이다.¹⁸ 이 글은 첫머리에서 죽음과 삶을 대하는 사람을 셋으로 나눈다 - 신체를 기계로 보아 내세를 부정하는 계열, 사후 영혼의 존재를 믿는 계열, 영혼과 생명과 의식의 실재 여부를 회의하며 연구하는 계열이다.¹⁹

본 발표가 수집한 이돈화의 글 가운데, 이노우에의 唯物·唯心·實在論 3 분법이 동시대인을 가르는 세 派의 구도로 옮겨진 첫 자리다(『개벽』 74 편, 『천도교회월보』 166 편 기준).²⁰ 첫째가 기계로 보는 자리(唯物), 둘째가 해석 없이 믿는 자리, 셋째가 회의하며 연구하는 자리(實在論)인데 이 셋째에 「哲學者」와 「改造」가 붙는다. 이돈화가 자기 자리를 셋째로 지정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 派를 규정한 술어가 다음처럼 그대로 남는다. 즉, 「靈魂의 實在 如何 又 生命 及 意識의 實在如何」를 이루는 靈魂·實在·生命·意識 넷이 두 해 뒤 『인내천요의』 哲理 절의 항목 이름이 된다.

¹⁸ 李敦化, 「吾人의 新死生觀 - 意識과 死生·生命과 死生·靈魂과 死生」, 『개벽』 제 20 호, 1922 년 2 월, 17 쪽.

¹⁹ 첫째는 사람의 身體를 一種의 機械로 보아 그 機械가 衰頹함과 共히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아무 繼續이 업다하는 派(此派에 屬한 人은 識者로는 科學者 一流의 物質論者이며 其他는 盲目的으로 그저 그러타하고 지내는 一般의 無宗教信者 中 一流들) / 둘째는 사람의 身體 中에는 一種의 靈魂이라 하는 精神的 個體가 잇서 肉體가 死함과 共히 靈魂이 體外를 脫出하여 어대인지 돌아가는 것이라 信하는 派(此派에 屬한 人은 全體가 舊式의 宗教를 아모 解釋도 업시 盲信하는 派) / 셋째는 靈魂의 實在 如何 又 生命 及 意識의 實在 如何에 對하여 懷疑의 態로써 不斷히 그를 研究하는 派(此派에 續한 人은 大概가 哲學者 流一의 高等한 識見을 가진 者 及 宗教를 正信코저하여 不斷의 改造를 絶叫하는 派). 李敦化, 「吾人의 新死生觀 - 意識과 死生·生命과 死生·靈魂과 死生」, 17 쪽.

²⁰ 3 분법은 어휘가 아니라 논법의 구조이므로 읽어서 판정해야 하는데, 1922 년 이전 이돈화의 글은 대부분 『천도교회월보』이고 그 전사가 아직 대부분 미검수이다. 판정을 「3 분법의 첫 등장」이 아니라 「동시대인을 가르는 세 派의 구도로 묶인 첫 자리」로 좁혀 적은 것은 그 때문이다.

② 그 전에는 없었는가

1922년 2월 이전 월보의 이돈화 글 161편에서 「三派」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唯物·唯心·實在·物心이 쓰인 글은 스물여덟 편이고, 그 가운데 3분법의 재료가 나타나는 자리는 넷이다.²¹

1913년 1월 「理想中新光陰」에는 「物質的 背後 卽 現象의 裏面」에 「固定 實在」를 놓는 구도가 있으나 唯物·唯心이 없어 대립하는 상대가 없다. 1918년 10월 「大神師性靈出世說(其四)」에는 「唯心論이 唯物論으로 化하며 唯物論이 更히 物心合一論으로 變했스며」라는 삼항의 틀이 있으나, 그 셋은 아시리아→히랍→로마와 나란한 학설의 시간적 계승이지 동시대인의 분파가 아니다. 1920년 1월 「天道教六十一歲花甲庚申을 迎함」에는 분류 어휘와 「古今千載에 敵論이 紛紛했도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으나, 하나를 여럿이 달리 부른다는 열거이지 셋으로 가르친 구도가 아니다. 1920년 11월 「實在論으로 觀한 人乃天主義」에는 완결된 3분법이 있다. 두 계통을 세우고 유물론을 셋으로 반박한 뒤 유심론을 둘로 반박하고 「物心 二者를 結付整理하여 가는 第三의 根本原理가 卽 實在論」으로 종합하며, 제목에서부터 實在論과 人乃天이 묶인다.²² 그러나 여기서도 「此 三者를 歷史上 順序로 觀하면」이라 하여 셋은 학설의 계승이며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곧 재료는 1913년부터 아홉 해에 걸쳐 갖추어졌고, 1920년 11월에는 유물론을 반박하는 논점과 순서까지 2장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자리에서도 셋이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다. 1922년에 새로 생긴 것은 재료가 아니라 그 배치이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갈리는 세 派」로 묶이고, 그 셋째에 이돈화 자신의 자리가 지정된다.

²¹ 1922년 2월 이전 발표된 이돈화의 글 161편에서 唯物·唯心·實在·物心이 쓰인 곳은 28편이다. 이 중 포착된 네 개 글의 서지는 李敦化, 「理想中新光陰」, 『천도교회월보』 제 30호(1913년 1월), 38쪽; 「大神師性靈出世說(其四)」, 제 98호(1918년 10월), 15쪽; 「天道教六十一歲花甲庚申을 迎함」, 제 113호(1920년 1월), 8~9쪽; 夜雷(李敦化), 「實在論으로 觀한 人乃天主義」, 『천도교회월보』 제 123호(1920년 11월), 31~36쪽(인용은 33·35·36쪽)이다.

²² 夜雷(李敦化), 「實在論으로 觀한 人乃天主義」, 『천도교회월보』 제 123호(1920년 11월), 31~36쪽(인용은 33·35·36쪽). 본문 전체를 원본 지면과 한 글자씩 대조해 확정했다. 이 글은 2장의 대조에 단서를 하나 더한다 — 1924년 책의 유물론 반박이 이노우에와 같은 논점·순서를 갖는다는 판정은 그대로이나, 그 논법이 1924년에 처음 한국어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③ 왜 그때 불러 나왔는가

첫 표적이 무엇인지는 위의 三派 배열에 드러난다. 첫째 派의 규정이 「識者로는 科學者 一流의 物質論者」다. 1921년 이돈화는 露國 過激派와 各國의 無政府黨·共產主義黨을 시대의 병적 운동으로 꼽았고, 1924년에는 「근대 말쓰主義를 信奉하는 人士間에는 대개 萬事を 唯物的 機械的으로 판단코져 하여 精神問題를 度外에 付케 하는 感이 업지 안이하다」고 적었다.²³ 뒤의 규정에 쓰인 두 어휘가 1922년 첫째 派를 규정한 두 어휘와 같다 - 機械와 精神이다.

계기는 교단 안에 있었다. 천도교 제 1차 분규가 1921년 말에 점화한다.²⁴ 그러나 표적은 교단 밖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돈화는 東洋室主人이라는 필명으로 동형의 三派(頑固派·破壞派·文化派)를 한 번 더 구사하는데, 이 글은 분규의 원인을 조선 사상계의 파괴적 경향이 교단에 파급된 것으로 명시한다.²⁵ 계기와 표적의 구분이 이돈화 자신의 진술로 입증되는 자리다.

그래서 개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사정을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상대의 성격이다. 1921년 3월 『아성』의 「유물사관요령기」를 시작으로 맑스주의 이론의 번역과 소개가 조선에서 궤도에 오르던 무렵이고, 이돈화는 사회주의와 이론의 주도권을 두고 겨루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²⁶ 다른 하나는 이돈화 자신의 규정이다. 그는 첫째 派 안에서 「識者로는 科學者 一流의 物質論者」와 「盲目的으로 그저 그러타하고 지내는」 무리를 갈라 놓았고, 자기가 속할 셋째 派를 「哲學者 流一의 高等한 識見을 가진 者」 곁에 세웠다. 상대를 무지가 아니라 식자로 놓은 것이다. 이론을 갖춘 상대와 식자의 자리에서 다투는 구도에서는 이름과 도식의 나열만으로는 감당되지 않고 반박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²³ 白頭山人(李敦化), 「社會現象概觀」, 『개벽』 제 10호, 1921년 4월 / 李敦化, 「朝鮮勞農運動과 團結方法」, 『개벽』 제 46호, 1924년 4월.

²⁴ 천도교 제 1차 분규의 경과와 그 사회주의 연관은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158~159쪽·201쪽 참조.

²⁵ 東洋室主人(寄), 「萬人注視의 興味中에 싸힌 今後의 天道教」, 『개벽』 제 28호, 1922년 10월, 15~20쪽. 이 필명을 이돈화로 보는 것은 허수(2011)의 비정에 따른다(허수, 2011, 165~166쪽). 단, 허수(2011)에서는 이 필명을 '洋東室主人'으로 잘못 언급했다.

²⁶ 정혜정, 「1920년대 동북아시아의 사회주의 연동과 조선 신문화운동」, 『동북아연구』 34-2,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9, 177쪽. 이돈화가 사회주의와 이론의 주도권을 두고 겨루어야 했다는 지적은 김용휘,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범한철학』 77-2, 범한철학회, 2015, 52쪽.

3-2 무엇이 깎였고 무엇이 남았는가

넷째 하위질문, 즉 논법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깎여 나갔고 무엇이 유지되었나를 다룬다.²⁷ 옮겨 오는 동안 달라진 것을 네 갈래로 나눈다 - 빠진 것, 바뀐 것, 더해진 것, 그리고 남은 것이다.

① 빠진 것 - 서양 학자의 이름과 학설사

절 단위로 통째 빠진 것들이 있다. 제 2 장에서는 유물론의 長處를 논한 대목(第四)과 스피노자 이하 기존 實在論을 검토한 대목이 빠지고, 제 5 장에서는 活力論의 네 갈래 계보(Haller·Johannes Müller·Darwin·Bunge)가 빠진다. 그 넷 가운데 다윈의 자리가 특히 무겁다. 다윈은 활력론 계보의 한 항목이 아니라 그 계보를 무너뜨린 편에 선 이름이고, 이돈화가 월보에서 세 번 부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런데 1924 년 책은 그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進化論」은 아홉 번 쓰고 인류가 원류(猿類)에서 왔다는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곧 빠진 것은 학설이 아니라 그 학설을 둘러싼 학자들의 이름과 논쟁사다.²⁸

논박 자체가 오지 않은 자리도 있다. 進化 항이 그것이다. 이돈화는 「進化論으로 確實한 眞理가 있다 前提로 하고」라 밝히고 논박을 생략한다. 이노우에 쪽에는 진화론을 검토하는 장이 따로 있다(제 3 장 「哲學上より見たる進化論」). 곧 이노우에가 진화론을 검토의 대상으로 놓은 자리에서 이돈화는 그것을 논증의 전제로 놓는다.

다만 第四는 다른 종류이다. 유물론의 長處를 인정하는 그 대목은 학계의 지형이 아니라 상대의 몫을 인정해 논의의 균형을 잡는 대목이고, 이돈화의 글에는 그런 자리가 없다. 유심론 비평 다섯이 대칭 한 쌍으로 줄어든 것과 같은 방향이다.

²⁷ 3 장 2 절에서 인용하는 이돈화의 대목은 『人乃天-要義-』 제 3 장 제 4 절의 제 2 항 「實在와 人乃天」(92·93·97 쪽), 제 4 항 「生命과 人乃天」(107 쪽), 제 5 항 「意識과 人乃天」(115~125 쪽), 제 7 항 「進化와 人乃天」(132·137 쪽)이다.

²⁸ 서양 학자의 이름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깎였다」고 말하려면 반론 하나를 넘어야 한다. 이름이 줄어든 것은 논변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지면이 달라져서일 수 있다는 반론이다(허수 2011). 실제로 시기와 필자를 같게 맞추어 재면 서양 인명을 소리대로 옮겨 적은 표기가 『개벽』에서는 만 자마다 5.17 번, 『천도교회월보』에서는 0.82 번이다. 다만 두 지면을 종교지와 계몽 종합지로 가르는 것은 거친 구분이며, 월보가 창간 초기에 「대한제국기 계몽잡지와 대동소이었다」는 지적도 있다(김정인, 「1910 년대 『天道教會月報』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2002, 309 쪽). 그러나 이 차이로는 다윈이 설명되지 않는다. 다윈은 바로 그 종교지에서 세 번 불린 이름이고, 1924 년 책은 니체·톨스토이·러셀은 부르면서 活力論의 네 사람만 한 명도 부르지 않는다.

② 바뀐 것 - 같은 대목이 두 항에서 다른 일을 한다

2 장 1 절에서 본 대로 實在 항의 첫째와 셋째 논점은 제 2 장의 네겔리 대목에서 재료를 얻었다. 그런데 그 대목이 간 곳은 實在 항만이 아니다. 같은 哲理 절의 意識 항에도 들어가는데, 이쪽은 이노우에가 그 대목에서 이끌어 낸 결론을 그대로 잇는다.²⁹

<표 10> 제 2 장 네겔리 대목이 갈라져 들어간 두 자리

이노우에 제 2 장	이돈화 意識 항 - 원자에도 의식이 있다는 근거로 쓴다	이돈화 實在 항 - 유물론이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쓴다
拒力引力とは吾々人間の憎愛に當るのである	「原子 中에 包含한 拒力 吸力은 動物에 在한 愛憎心과 同一하다」	「物質에는 拒力과 吸力이 있나니」- 物質學者는 그 力을 「證明할 根據가 업섯다」
男女の間の戀愛はなか / \ 強い	「戀愛에 被驅하야 忽然히 合하며 忽然히 分하야...亦是 細胞의 向背的 作用에 지나지 안이 한다」	「忽然이 合하며 忽然이 分함」을 「力學的 機械的으로 보지 못할 것이라」
之を細胞國(Cellenstaat)と今では謂つて居る	「四百兆의 細胞가 集合하야 - 身體의 主國을 建設하엿는 故로」	-
물질에도 의식이 있다는 자기 논거로 삼는다	「科學者の 證明하는 말이로다」	物質論의 결함으로 돌린다 로 남긴다

意識 항은 이노우에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는다. 원자에 拒力·吸力이 있고 그것이 동물의 愛憎心과 같다는 것, 사백조의 세포가 모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 - 이노우에가 의식이 무기물에까지

²⁹ 이 이어짐은 선행연구가 이미 지목했다. 허수(2011)는 이노우에가 「모든 물질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네겔리의 학설을 인용한 뒤 「의식은 발달한 인간에 와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 전부터 생겨났」으며(『哲學と宗教』 75~76 쪽) 「물질에도 매우 희박한 상태로나마 의식이 있다」고 말한 대목을 들고(76~77 쪽), 이돈화가 이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았다. 같은 연구는 제 2 장의 서술 목적이 「실재론의 공평함과 엄정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적었다(69~70 쪽). 본 발표가 확인한 것은 그 이어짐이 1924 년 책의 意識 항까지 미친다는 점이다.

있다는 결론을 끌어낸 바로 그 근거들이 이돈화 쪽에 그대로 놓인다. 이 자리에서 이돈화가 이노우에에게서 받은 것이 개념과 도식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實在 항은 같은 재료를 반대로 쓴다. 이노우에가 감정 그 자체라고 규정한 拒力·引力이 여기서는 「物質學者는 其本能의 力を 무엇이라 證明할 根據가 업섯다」가 되어 유물론의 결함을 보이는 증거가 된다. 이노우에가 실재론의 입장을 세우던 근거를 이돈화는 유물론을 반박하는 자리에 놓은 것이다. 한 대목이 두 항으로 갈라지면서 한쪽에서는 받아들여지고 다른 쪽에서는 반박의 논거가 된다.

意識 항이 제 2 장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 항을 떠받치는 분류의 틀은 제 6 장에서 왔다.

<표 11> 意識 起源 分類의 이식 - 여섯에서 다섯으로

이노우에 제 6 장	이돈화 意識 항
第一 人間本位意識論	첫재는 사람 本位の 意識論
第二 神經本位意識論	둘재는 神經 本位の 意識論
第三 動物本位意識論	셋재는 動物 本位の 意識論
第四 生物本位意識論	넷재는 生物 本位の 意識論
第五 細胞本位意識論	—
第六 原子本位意識論	다섯재는 原子 本位の 意識論

이 표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이름의 移植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여섯이 다섯으로 줄었으나 남은 다섯의 이름은 하나도 새로 지어지지 않았다.³⁰ <표 7>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이며,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으나 두 번이면 그렇지 않다. 다른 하나는 목록의 종점이다. 이돈화는 이노우에가 이미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항을 그대로 남겼는데, 그 항이 그의 논증이 가야 할 곳과 맞물린다. 原子라야 「全宇宙의 萬有現象을 한가지 意識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항의 끝이 그대로 인내천으로 이어진다 - 「人乃天主義는 사람性的의 無窮을 根據하엿음으로 나온 말이니 … 사람 곳 한울의 意味가 이에서 나온 것이니라」. 이노우에에게 의식의 편재는 실재론을 세우는 근거였다. 이돈화에게 같은 주장은 인내천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

³⁰ 다만 이돈화가 細胞를 버린 것은 아니다. 목록에서 뺐을 뿐, 같은 항의 이어지는 서술에서 「우리는 畢竟 細胞 本位の 意識論을 認定치 안이 치 못할 것이며 原子 本位の 意識論을 否認할 수가 업는 것이다」로 되살린다.

③ 더해진 것 - 동양의 고전과 달라진 종점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동양의 고전이다. 이돈화는 實在 行에서 實在論의 원리를 깨친 자로 莊子를 호명하고, 進化 行에서는 우주가 단순에서 복잡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태극도설로 푼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토착화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노우에 자신이 동양 고전을 즐겨 쓰고 「東西洋哲學思想の一致」라는 장까지 두었기 때문이다. 차이는 그 동작이 향하는 목적에 있다. 이노우에에게 동양 고전은 동서의 사상이 결국 하나임을 보이는 증거이고, 이돈화에게는 인내천이 이미 오래된 진리였음을 보이는 근거다.³¹

닫는 어조도 바뀐다. 이노우에는 「이것은 機械論을 주장하는 분께 충분한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라며 질문을 상대에게 넘기는데, 이돈화는 「뉘-生命으로써 機械라 볼 沒常識者が 잇스리오」라는 반문으로 끝맺는다. 그리고 종점이 달라진다. 이노우에는 실재론을 「哲學として最後の立場」이라 부르며 거기서 멈추고, 이돈화는 같은 논법을 한울님으로, 다시 사람性 無窮으로 밀고 간다. 그 종점이 무엇에 맞선 것이었는지는 그 책의 광고에서 알 수 있다. 초판 발행 여드레 뒤 『동아일보』 광고는 「後天開闢의 第一宣言」을 내걸고 대척점을 명시한다 - 「보아라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의 究境 理想에도 현대의 민중은 오히려 快滿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³²

④ 남은 것 - 반박의 순서와 항목의 이름

앞의 셋을 다 덜어 내고도 그대로 온 것이 둘이다. 하나는 유물론을 반박하는 순서이고, 본 발표 2장에서 두 자리에 걸쳐 확인했다. 다른 하나는 항목의 이름이다. 意識 起源의 분류는 여섯이 다섯으로 줄었으나 남은 다섯의 이름이 하나도 새로 지어지지 않았고(<표 11>), 生命의 다섯 특징도 넷으로 줄었으나 같은 일이 일어났다(<표 7>). 그리고 實在 行의 두 항목 이름 現象即實在 와 圓融實在는 이노우에가 강연 끝에서 대기만 하고 설명하지 않은 그 이름이다. 넷째 하위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다 - 잃은 것은 학설사와 논박의 두 자리이고, 지킨 것은 반박의 순서와 항목의 이름이다.

³¹ 동서 일치는 제 10 장이 철학의 층에서 말하는 것이고, 일치의 자리에 일본을 놓는 진술은 종교의 층, 곧 제 22 장 「日本に於ける宗教の統一」에 있다. 현상즉실재론의 이면에 「東西 대립의 해결주체는 일본밖에 없다」는 자의식이 있다는 판단은 허수(2011)의 것이다. 이돈화의 글과 어휘가 겹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종교의 층이다(1 장).

³² 「人乃天(要義)」광고, 『동아일보』 1924 년 4 월 7 일.

이상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논법은 오는 길에 적지 않은 것을 잃었다. 서양 학자의 이름과 학설사가 빠지고 進化 項에서는 논박 자체가 오지 않았으며(①), 같은 대목이 두 項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②), 빠진 자리를 동양의 고전과 교단의 권위가 채우면서 도착점이 실재론에서 인내천으로 옮겨졌다(③). 그럼에도 반박의 순서와 항목의 이름은 그대로 왔다(④).

結 - 개념에서 논법으로

이돈화가 현상즉실재론에서 받아들인 것은 주요 개념과 이원론적 일원론 도식만이 아니라 유물론을 무너뜨리는 논법까지였다. 그 논법이 인내천 논증이 된 것은 서양 학자의 이름과 학설사를 덜어 내고, 이노우에가 실재론의 근거로 삼은 대목을 한쪽에서는 그대로 이어받고 다른 쪽에서는 유물론을 반박하는 데 돌려 쓰며, 도착점을 실재론에서 인내천으로 옮긴 결과이다.

하위 넷의 답이 그 판정을 떠받친다. 첫째, 어휘가 겹치는 곳은 이노우에의 철학 장들이었고, 종교 쪽으로 뻗은 두 갈래 어느 쪽도 그가 일본의 신화와 민족을 논한 자리는 아니었다. 둘째, 그 철학의 장들에서 이돈화는 유물론을 반박하는 논점과 순서를 그대로 가져왔다. 셋째, 그 논법은 1922년에 불러 나왔다. 교단 안의 분규가 계기였으나 겨누는 것은 교단 밖의 유물론이었고, 그 유물론이 이론의 형태로 들어와 있었으므로 개념과 도식의 나열만으로는 감당되지 않았다. 넷째, 논법은 오는 길에 적지 않은 것을 잃었으며 반박의 순서와 항목의 이름은 지켰다.

이는 허수(2011)가 밝힌 개념과 도식의 수용 위에 한 층이 더 있었음을 뜻한다. 이돈화가 유물론을 비판했다는 것과 그가 이노우에에게서 개념과 도식을 받았다는 것은 각각 밝혀져 있었으나 그 둘은 이어지지 않은 채였다. 이 발표가 이은 것이 그 자리이다. 이 층이 여태 보이지 않았던 데는 까닭이 있다. 두 책은 어휘를 거의 공유하지 않으므로 어휘의 겹침을 재는 방법으로는 이 층을 잡아내지 못했고, 개념의 목록이나 도식의 그림을 맞대는 일로도 잡히지 않는다. 반박을 펴는 순서는 목록에도 그림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돈화가 그 논법을 옮겨 적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달리한 것이 넷이다. 첫째, 한 장을 한 項으로 옮기지 않고 여러 장을 하나의 項으로 엮었으며, 거꾸로 제 2장의 한 대목은 두 項으로 갈라져 한쪽에서는 이노우에의 결론을 그대로 잇고 다른 쪽에서는 유물론을 반박하는 데 돌려 쓴다. 둘째, 순서는 그대로 받았으나 논점의 수는 줄였다. 셋째, 活力論의 「力」을 「精」으로 갈고 意識 起源의 목록에서 細胞를 빼 原子를 종점으로 남겼다. 넷째, 이노우에가 철학의 마지막 입장이라며 멈춘 자리에서 이돈화는 한울님으로, 다시 人間性 無窮으로 밀고 간다.

방법의 편에서 남는 것은 하나이다. 두 책의 어휘가 거의 겹치지 않는데도 반박의 순서는 같았다. 유사도는 같은 말을 쓰는지를 볼 뿐 같은 방식으로 논하는지는 보지 못한다. 이 발표에서 계량이 한 일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날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끝으로 이 발표의 한계를 밝힌다. 첫째는 자료의 판독이다. 본문이 인용한 대목은 모두 원문 지면과 대조했고, 판독을 교차 검증할 수 없는 자료는 어휘의 유무를 세는 데만 쓰고 인용하지 않았다. 이 범위 안에서 판정은 성립한다. 그러나 『천도교회월보』 166 편 가운데 전문을 대조한 것은 열 편이고 나머지는 AI 모델 셋의 자동 합의에 기댄 초벌이어서, 어떤 말이 「없다」고 할 때 정말 없는 것인지 판독이 놓친 것인지 가릴 수 없다. 월보 논설의 전사를 원문에 맞게 마무리하고 그 위에서 판정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둘째는 두 책 사이에 놓인 잡지이다. 논법이 1922 년에 이미 잡지에서 다듬어진 것인지, 1924 년 단행본 시점에 곧장 온 것인지는 별고가 답할 몫이다. 다만 이 발표가 답한 것은 그와 무관하게 남는다. 개념이 건너온 것과 논법이 건너온 것은 다른 사건이며, 뒤의 것은 앞의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자료와 참고문헌

이 발표가 달는 산출의 원자료·스크립트·편별 대장은 github.com/hursoo/phenomenal-realism-kr 에 공개한다. 발표문이 지는 몫은 판정과 그 근거이고, 저장소가 지는 몫은 그 판정을 다시 낼 수 있게 하는 것들이다.

자료

井上哲次郎, 『哲學と宗教』, 東京: 弘道館, 1915. 序와 附錄 두 편을 합해 스물아홉 장.

李敦化, 『人乃天-要義-』, 京城: 天道教中央宗理院布德課, 1924(초판 3 월 30 일). 저본은 필자 소장 인쇄본이다.

『개벽』 74 편(1920 년 6 월 창간호부터. 본명 41 편에 필명 33 편).

『천도교회월보』 166 편(1911 년 1 월부터 1922 년 5 월까지). 편별 대장과 판독 등급은 저장소에 있다.

참고문헌

- 김용휘,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 이돈화의 『신인철학』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77-2, 범한철학회, 2015.
- 김정인, 「1910년대 『天道敎會月報』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2002.
-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 이철호, 「우주종교로서의 개벽사상 - 이돈화와 김지하의 진화론 수용 및 그 정신사적 계보」, 『한국학연구』 3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이해경, 「이노우에 데쓰지로와 현상즉실재론 - 「내 세계관의 먼지 한 톨」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31, 한림과학원, 2023.
- 정혜정, 「이돈화의 인내천주의와 서구근대철학의 수용」, 『동학학보』 19, 동학학회, 2010.
- 정혜정, 「1920년대 동북아시아의 사회주의 연동과 조선 신문화운동: 천도교 잡지 『개벽』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4-2,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9.
- 허수, 『이돈화 연구: 종교와 사회의 경계』, 역사비평사, 2011.
- 허수, 「개벽의 종교적 사회운동론과 일본의 「종교철학」」, 『인문논총』 72-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 허수, 「「공간의 시간화」에 맞선 「재귀적 시간화」 - 1920년 전후 『개벽』 주도층의 현상즉실재론 수용과 변용」, 『한국사론』 7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25.
- 허수, 「인내천 논증을 통한 이돈화의 현상즉실재론 전유 - 디지털 문헌학으로 본 매개 경로와 변안 양상」, 세미나반 내부발표, 2026년 6월 12일(미간행).
- 황종원, 「이돈화의 우주관과 인간관이 지니는 동서철학 융합적 특징 및 생명철학적 의의 - 『신인철학』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6.